

2016 우리춤연구소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

2016 The 10th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of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Dance

'Arts & Technology
융복합 교육시리즈1 - 융복합 교육
과 실천을 위한 미래담론'

2016 우리춤연구소 제10회 국제학
술심포지엄은 한국연구재단, 한양대
학교 제2공과대학의 후원으로 2016년
11월 5일(토),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
관에서 개최되었다.

본 심포지엄의 주제는 2년에 걸쳐
진행되는,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
교육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
제시하는 융복합 교육시리즈의 그 첫
번째이다. 대만, 중국, 일본, 한국의
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융복합 연구자
들의 협업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문적
소통의 장으로 융복합연구와 교육에
대해 논의하였다.

올해도 예년과 같이 융복합에 관심
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및 석·



박사 재학생의 참여로 열 띤 현장 분
위기가 조성되었다.

아래 순서로 발제와 토론, 종합토론
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와 우리춤
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심포지엄

을 확인할 수 있다.

- 1부 - 텅팅창 (대한국립예술대학교 - 무용학
과) 토론 권태수(컴퓨터공학)
무용과 멀티미디어 협업에 대한 미학
과 융합적 속성에 대한 연구

- 2부 - 류호경 (한양대학교 - 아트테크놀로
지)토론 김운미(무용학과)
의학-공학의 융합연구인 중개연구를
통해서 본 예술-공학 융합연구의 발전
방향
정연심 (홍익대학교 - 예술학과) 토론
김의곤(상명대학교 영상학과)
열린 체계: 백남준과 예술과 기술의
협업사례
- 3부 - 클로징 리마크 -전미라 기자

제 3회 우리춤포럼

'우리 춤,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열다'

2016년 9월23일 금요일 밤 8시 대학
로 예술극장 3관에서 제 3회 우리 춤
포럼이 개최 되었다.

우리춤 포럼은 김운미 학장 문하에
서 사사한 한양대학교 대학원 무용
학 박사 학위자들이 각자의 연구물
을 살아 숨 쉬는 공연과 함께 발표
하는 형식으로 '우리 춤, 역사를 품
고 미래를 열다'라는 주제로 2013년
시작되었다.

김운미 학장이 연구하는 무용과 테
크놀로지의 융합을 위한 연구자들의
학술발표 및 공연의 형식으로 이루어
진 이번공연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
새로운 형식의 공연물을 탄생시켰다
는 데 의미를 둔다.

우리 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
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연구와 새로운
공연의 형식으로 만들어 졌다. 과거

의 박숙자 박사의 [백제 : 호선무 - 둔
황 벽화를 중심으로-] 연구, 현재의
흐름인 한류의 연구를 확장하여 문희
철 박사의 [한류와 한국 전통춤 콘텐
츠] 연구, 미래의 연구로 이미희 박사
의 [춤에 의한 IT 융합술] 연구 발표
와 함께 현장에서 관객들과의 소통을
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형식으
로 진행되었다.

전통 그림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
법의 활용, 한국 전통 춤 콘텐츠의 영
역확장과 한류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
창의적 방안,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
모바일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 창출의
적용 가능성 등 시연되는 공연 마다
우리 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늠
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, 우리 춤
포럼의 공연은 우리 춤 공연 형태의
새로운 스펙트럼을 열어 완성도 높은



기획공연으로 이루어 졌으며 창의 융
합의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
한 결과물을 생생하게 공연하며 현장
에서 직접 시연 발표하는 새로운 시
스템으로 앞으로의 발표가 더욱 기대
된다.

-우리춤포럼 문희철

우리춤 연구소 논문집 발간 '우리춤과 과학기술' 제32집~35집



우리춤연구소는 다양한 학문의 융
복합연구소를 목표로 매년 4회 발간
하고 있다.

'우리춤과 과학기술' 제호에 걸맞
게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복합 연
구에 집중하고자 하며, 정기적으로
발간을 유지하며 무용, 음악, 뮤지
컬, 연극, 영화, 역사, 공학, 학술대
회의 발표된 해외학자들의 논문을
비롯해 통합적 학문과의 연계체제로
보다 폭 넓은 연구와 질적 연구를
극대화하고자 한다.

2016 한·일 일본단기 한국어연수 대학생 교류 방한

한양대학교 국제처에서 주관하는
'일본단기한국어연수' 프로그램으로
일본학생들과 한양대학교 무용과와
교류하는 행사가 8월 10~13일, 3일
동안 오후2시에 한양대학교 한국무용
홀에서 열렸다. 교류 참여 학교로는
도카이, 와세다, 오사카, 오키나와여자
대학 등의 학교가 참여했고, 강습회
활동으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쉽게 따
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속춤인 "강
강술래"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.
본격적인 순서를 들어가기에 앞서 강
강술래의 유래에 대한 설명과 영상 관
람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. 강강술래



춤사위인 정어여기·풀기, 고사리꺾
기, 지와밟기, 남생야 놀아라, 뚝다리
밟기 등 순서들을 놀이형식으로 쉽고
재미있게 익히며 다소 무거웠던 분위
기를 웃음과 몸짓으로 승화시켰다. 매
년 여름 한·일간 교류를 통해 한국의 문
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일본학생들에
게 우리나라 전통 민속춤에 대해 관
심을 가지게 하고, 꾸준한 교류가 이
루어지길 바란다. -김재은 기자

제 9회 우리춤연구회 강습회 "예기 수건춤"

우리춤 연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우
리춤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. 6월 18
일(토) 한국무용홀에서 진행된 강습회
는 예년과 같이 많은 무용전공자들의
참여하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.

올해의 강습회는 전라북도 지정 무형
문화재 제48호로 선정된 김광숙의 예기
무 중 '예기수건춤' 으로 진행이 이루
어졌다. 예기무는 잔치 참석자의 흥을
돋우기 위한 놀이적 성격의 춤이며 예
기수건춤은 경박스럽지 않게 굿거리장
단에 맞추어 암전히 추는 춤으로, 손에
무구인 수건을 끼우고 천의 유연한 움
직임을 통해 기녀들의 애교를 살필 수



있는 춤이다. 또한, 수건을 떨어뜨리고
들어올리는 장면에서는 입으로 살포시
물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행동을
반복해 예기들의 섬세하고 고운 춤사위
를 보여준다.

예기수건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
되어 우리의 춤을 전파시키고 끊임없이
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앞으로도 꾸준히
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문화자산이다.
-공주희 기자